

히로시마시 다문화 공생 마을만들기 추진 지침【개정판】 개요

1 개정 취지

본 시에서는 2006년에 "히로시마시 다문화 공생 마을만들기 추진 지침" (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다문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해 생활 관련 정보의 다국어화나 다국어 상담 체계 확충, 일본어 교육 내실화 등에 노력해 왔다.

일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지난번 지침을 개정했던 2014년 연말 시점에는 약 212만 명이었으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는 증가세가 지속되어 있으며 2024년 6월 말 시점에서 358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본 시에서도 지난 지침 개정 시 (2014년 3월 말)에 15,651명이었던 외국인 주민 수는 2025년 3월 말 시점에 23,297명, 본 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적이나 체류자격 구성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사이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사회를 맞이하여, 본 시에서도 201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래에 걸쳐 활력 있는 지역 사회를 유지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도시' 히로시마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본 시에 있어서 외국인 시민(※)은 지역 사회, 경제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한 주체로서 더욱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시는 외국인 시민이 국적에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안심하고 쾌적하게 지내며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평화 문화도시'를 도시상으로 내건 본 시에서는 모든 시민이 서로의 문화적 배경이나 민족, 국적 등의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서로를 지지하는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과, 누구나 평화의 소중함을 실감할 수 있는 풍부한 문화와 인간성을 함양하는 도시 만들기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2022년도에 실시한 "다문화 공생 의식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의 증가나 다국적화에 따른 지원 내용의 충실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2024년 6월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7년 중 "기능 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취업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육성 취업 제도"를 창설할 예정이며, 본 시로서도 이러한 국가의 외국인 수용 정책 변경에 따른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다. 개정 후, 시민 생활에 직접 관련된 기초 자치단체로서 외국인 수용과 관련된 국가 및 현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연계하면서 외국인 시민을 둘러싼 실태 등의 변화에 부응하는 다문화 공생 시책을 시행한다.

※외국인 시민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는 본 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에 더해,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에 뿌리를 둔 부모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정으로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 전반을 "외국인 시민"으로 정의한다.

히로시마 시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 국적자만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으로 표기한다. 단,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표기를 변경하지 않는다.

2 다문화 공생 마을만들기의 목표

목표 1 외국인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 추진

본 시는 외국인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하여 생활 관련 정보의 다국어화 등 커뮤니케이션 지원에 힘쓰는 동시에, 방재나 교육, 취업 등 생활 지원 등의 시책 확충을 도모하여 외국인 시민을 포함한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목표 2 다문화 공생 의식의 함양

본 시는 외국인 시민이 지역의 문화와 관습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다문화 공생 및 이문화에 대한 이해 계몽과 시민 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외국인 시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서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도록 노력한다.

3 지침의 진행 관리 등

- 의식 조사를 10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음 (다음은 2032년도 예정)에 따라, 본 지침도 차기 의식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33년도에 재검토에 착수한다.
- 또한 제 7차 히로시마시 기본계획의 수립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지침의 수립부터 재검토 중간 연도에 해당하는 2029년도에 본 지침의 중간 재검토를 실시한다.

연도	레이와 7년 (2025)	레이와 11년 (2029)	레이와 14년 (2032)	레이와 15년 (2033)
대처	개정 완료	중간 재고	의식 조사	지침 재고

히로시마시 기본계획 계획 기간 (~2030)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중간 재고

4 외국인 주민의 상황 변화

통계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것

지난번 지침을 개정한 2014년 3월 말과 2025년 3월 말 시점의 통계 데이터 비교

● 외국인 주민 수

- 외국인 주민 수는 15,651 명에서 23,297 명으로 증가 (약 50% 증가)
-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2%에서 1.99%로 증가

● 국적별 인원 수

- 베트남 8.8 배 증가 (508 명→4,469 명),
- 인도네시아 14.5 배 증가 (103 명→1,495 명)
- 네팔 13.6 배 증가 (69 명→939 명)
- 한국, 북한 24.4% 감소 (5,976 명→4,520 명)
- 외국인 주민 총수에서 중국 국적, 한국 국적, 북한 국적자의 비율이 71.4%에서 41.3%로 감소

● 체류 자격별 인원 수

- 기능실습 3.1 배 증가 (1,371 명→4,193 명)
-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1 2.6 배 증가 (522 명→1,368 명)
- 가족 체류 2.1 배 증가 (642 명→1,335 명)
- 영주자 1.4 배 증가 (4,614 명→6,308 명)
- 특별영주자 28.3% 감소 (5,345 명→3,832 명)
- 특정기능 43.7 배 증가 ※2 (43 명→1,880 명)
- 상위 3 개 체류자격 (특별영주자, 영주자, 기능실습)이 차지하는 비율이 72.4%에서 61.5%로 감소

※1 2014년 인원 수는 "기술"과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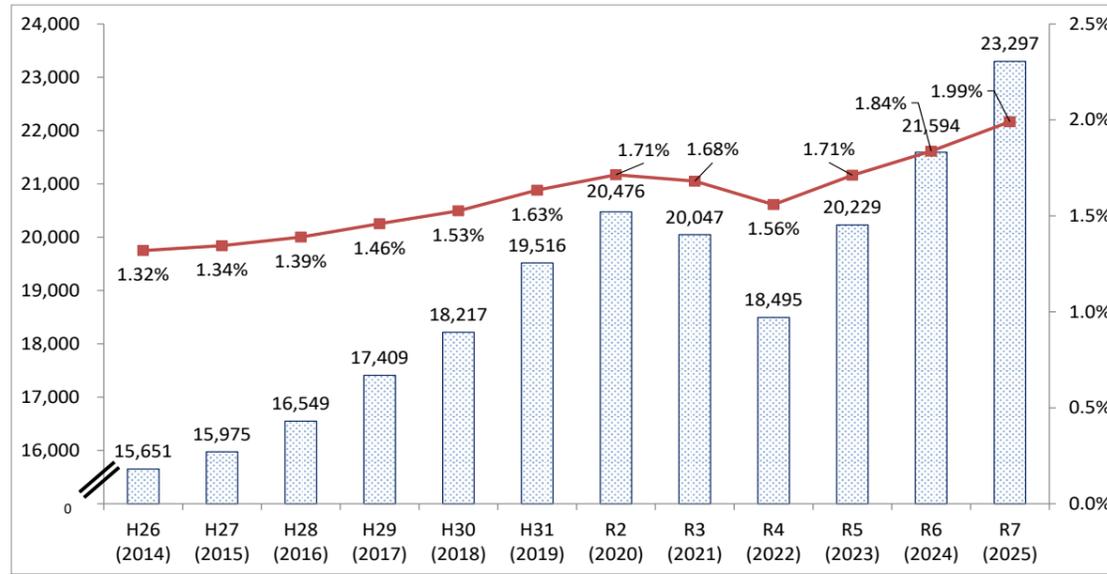
※2 체류 자격은 2019년에 창설되었으므로, 2020년 3월 말과 2024년 3월 말의 비교

2015년과 2020년의 국세조사 결과 비교

● 아동, 고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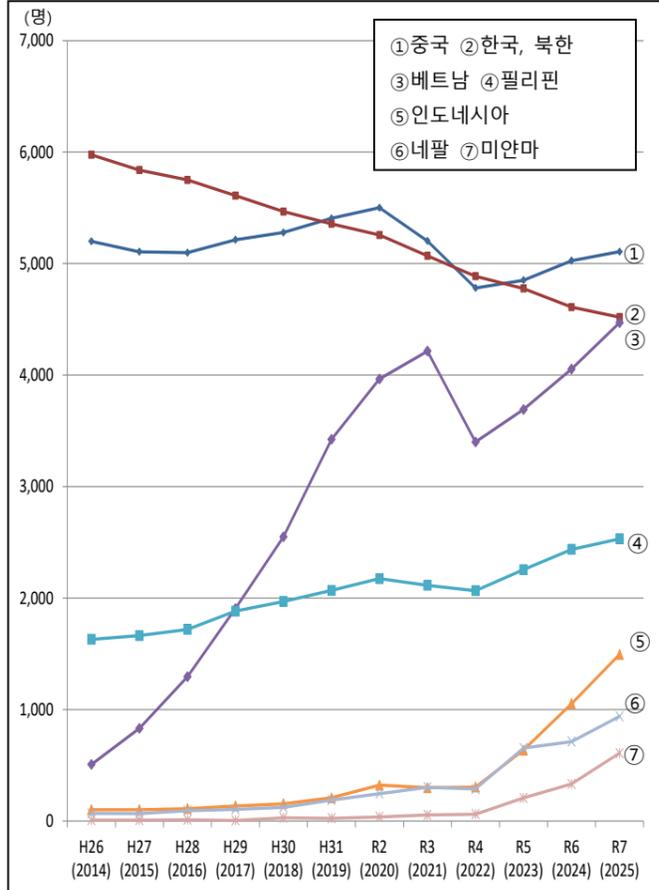
- 외국 국적 아동 (0세~14세)은 19.9% 증가 (1,246 명→1,494 명)
- 외국 국적 고령자 (60세 이상)는 4.8% 증가 (2,647 명→2,774 명)

■ 외국인 주민 수와 시내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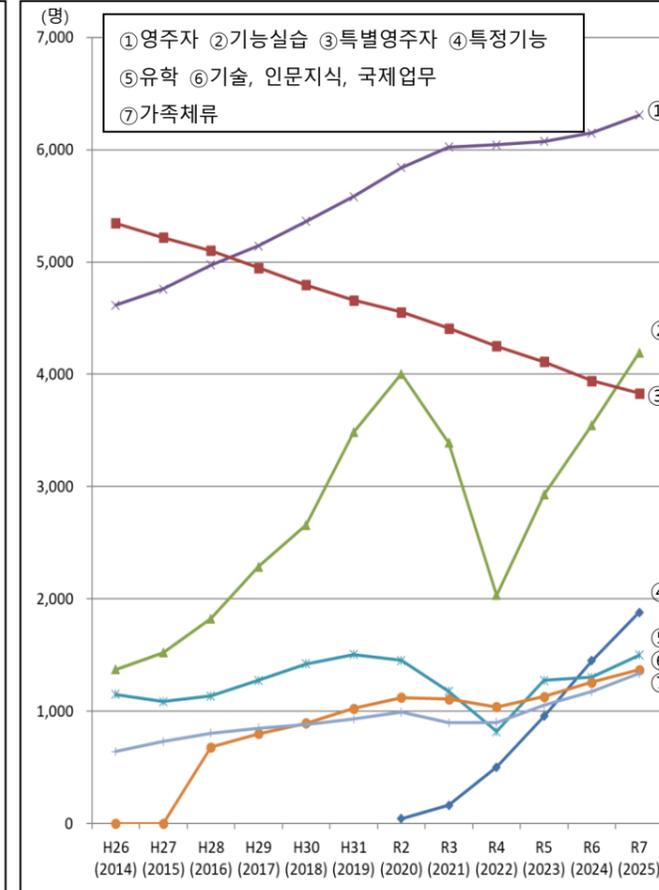
(출처) 히로시마시 주민기본대장 데이터 (매년 3월 말)

■ 국적별 인원 추이(상위 7위까지)



(출처) 히로시마시 주민기본대장 데이터 (매년 3월 말)

■ 체류자격별 인원 추이(상위 7위까지)



(출처) 히로시마시 주민기본대장 데이터 (매년 3월 말)

~향후 예상되는 것~

- 외국인 시민 수 증가와 국적 다양화 진행
- 외국인 노동자 수의 한층 더 한 증가
- 영주권자의 지속적인 증가
- 외국인 시민의 고령화 진행
- 외국에 뿌리를 둔 아동 증가
- 외국인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다양화
- 지역과 외국인 시민 간 교류 필요성 증대

다문화 공생 의식 조사 결과

(1) 외국인 시민에 관하여

2012년도 "히로시마시 외국인 시민 생활, 의식 실태 조사"와 2022년도 "히로시마시 다문화 공생 의식 조사" 결과 비교

● 정주 의사

- "일본에 계속 살겠다"가 74.4%에서 57.2%로 감소
- "일본을 주요 생활 장소로 삼지만 모국과 일본을 오간다"가 11.4%에서 19.9%로, "모르겠다"가 4.7%에서 11.7%로 증가

● 일본어 능력

-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과 같은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말하기, 듣기"에서는 50.4%에서 32.9%로, "읽기"에서는 53.0%에서 35.3%로, "쓰기"에서는 56.1%에서 38.1%로 감소

■ 일본어 능력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과 같은 정도"

	헤이세이 24년 (2012년) (A)	레이와 4년 (2022년) (B)	차이 (B-A)
말하기, 듣기	50.4%	32.9%	-17.5
읽기	53.0%	35.3%	-17.7
쓰기	56.1%	38.1%	-18.0

(출처) 다문화 공생 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2023년 3월)

● 생활 관련 상담처

-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 친족"이 70.0%에서 54.8%로 감소

■ 생활 관련 상담처

	헤이세이 24년 (2012년) (A)	레이와 4년 (2022년) (B)	차이 (B-A)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 친족	70.0%	54.8%	-15.2
일본에 거주하는 같은 나라의 친구, 지인	45.2%	45.2%	0.0
일본인 친구, 지인	47.2%	35.0%	-12.2
시나 현의 상담 창구	11.8%	13.5%	1.7

(출처) 다문화 공생 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2023년 3월)

(2) 일본인 시민과 외국인 시민의 의식 비교 (2022년도 조사 결과로부터)

- "일본인과 외국인이 사귀는 데 어려운 점"에 대해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 모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외국인 시민은 "문화나 습관이 다르다", 일본인 시민은 "사귌 계기가 없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
- "일본인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 모두 60% 이상이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고 답변

5 과제

1 커뮤니케이션 지원의 내실화

- 본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시민이 증가하며 다국적화되고 있다. 다국어 및 쉬운 일본어에 의한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일본어 습득이 필요한 외국인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본 시의 상황에 맞는 일본어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인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 외국인 시민의 생활 상황에 따른 지원

- 외국인 시민은 독신 근로자, 자녀 양육 세대, 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청년층,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각기 다른 생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각 계층의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시민이 다양한 생활 습관이나 문화 특성을 지니면서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과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시민 개개인의 생활 상황에 맞춘 지원을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생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외국인 시민이 고립되지 않도록, 본 시가 설치한 상담 창구의 홍보를 지속하여 이용하기 쉽게 마련하면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시 직원이 외국인 시민과 접촉할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구의 창구 등을 비롯해 범시청 차원으로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2) 외국인 시민의 활약 촉진

- 본 시에서 공부한 많은 유학생들은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로 진출하는 경향이 있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본 시에서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 기능 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육성 취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다. 국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인재 확보 및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본 시의 다양한 시책에 외국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외국인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 시민이 지역 공동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외국인 시민이 활약하기 위해서는 수용 측의 의식 개혁이나 이해 촉진도 필요하다.

3 교류, 상호 이해의 촉진

- 외국인 시민과 지역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류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 외국인이나 외국에 뿌리를 둔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도 다문화 공생 의식 계몽에 지속적으로 힘쓸 필요가 있다.

6 시책 체계

목표 1 외국인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 추진

기본 시책 1 커뮤니케이션 지원

시책 1 행정, 생활 정보의 다국어화

-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다국어 제공
-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행정 정보 제공
- 일본 사회의 관습 등에 대해 학습할 기회 제공

시책 2 일본어 교육의 추진과 '쉬운 일본어'의 보급

-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일본어 학습 기회 확대
- 일본어 교사 및 일본어 학습 지원자 등 일본어 교육을 지원하는 인재 확보, 육성
- '쉬운 일본어'의 보급
-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방식 및 일본어 교육 수요의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기업 등과의 일본어 교육 관련 협력 체계 구축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이나 '쉬운 일본어' 활용 등에 관한 기업에 대한 의식 개선

기본 시책 2 생활 지원 체계의 내실화

시책 1 외국인 상담 창구 운영

- 외국인 시민을 위한 외국인 상담 창구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 외국인 상담 창구에서의 상담 배경 및 상담자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처(행정기관, NPO 등)로의 확실한 연계

시책 2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보험이나 개호보험 등에 관한 다국어 정보 제공과 필요한 지원 검토, 시행

시책 3 교육 기회 확보와 아동, 육아 지원

- 외국에 뿌리를 둔 아동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 체계 구축
- 취학 상황, 가정 배경 및 언어 배경 등의 파악
- 보호자에 대한 취학 관련 정보의 다국어 제공
- 지원 관계자의 네트워크 구축
- 학교에서의 일본어 학습 지원 및 일본어 학습을 지원하는 인력 양성과 확보
-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에 있어서 귀국학생 및 외국인 학생 등의 특별입학에 관한 선발의 실시
- 연령에 맞는 모국어 능력 함양의 중요성에 관한 계몽 추진
- 아동, 육아 지원 서비스에 관한 다국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제공 시 다국어 대응 추진

시책 4 주택 확보를 위한 지원

- 히로시마시 거주 지원 협의회에서의 외국인 시민 거주 지원
- 외국인 시민의 주거 찾기에 협력하는 기업 및 단체 정보나 주택 관련 규칙 등에 대한 다국어 정보 제공

시책 5 재난 등 비상시에 있어서의 지원

- 재해 다국어 지원 센터 설치 및 재해 통역 등 자원봉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한 재해 시의 지원
- 지역 내 외국인 시민을 포함한 평상시 훈련 등의 실시 지원
- 외국인 시민 대상 방재 지식 및 정보 수집 방법의 홍보
-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행정 정보 제공(재게재)

기본 시책 3 외국인 시민이 활약하는 마을만들기

시책 1 적절한 노동 환경 확보

- 외국인 수용 단체와 연계한 외국인 수용 노력

- 외국인 수용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외국인에게도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출입국, 재류관리국이나 노동국과의 연계, 외국인 수용과 적절한 노동환경 확보에 관한 제반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 실시
-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방식 및 일본어 교육 수요의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기업 등과의 일본어 교육 관련 협력 체계 구축(재게재)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이나 '쉬운 일본어' 활용 등에 관한 기업에 대한 의식 개선(재게재)
- 유학생의 본 시 정착 촉진을 위한 관계자의 제반 과제 및 정보 파악, 정리 및 시책 반영

시책 2 사회 참여 촉진

- 시 심의회 등 위원에 외국인 시민의 기용 등 외국인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기회 창출
- 사회복지협의회 및 히로시마 LMO 등 지역, 시민 단체 활동 참여 등 외국인 시민의 사회 참여 촉진
- 외국인 시민을 수용하는 측의 이문화 등에 대한 이해 촉진

목표 2 다문화 공생 의식의 함양

기본 시책 1 교류 기회 창출과 상호 이해 촉진

- 외국인 시민의 모국 문화 및 일본 문화 등을 소개하는 교류 행사 개최를 통한 외국인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류 기회 창출
-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히로시마 장학금"의 장학생 및 유학생 회관 입주자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기회 창출, 상호 이해 촉진
- 사회복지협의회 및 히로시마 LMO 등 지역, 시민 단체 활동 참여 등 외국인 시민의 사회 참여 촉진(재게재)

기본 시책 2 다문화 공생에 대한 이해 촉진

- 지역 교류 행사 및 강좌 개최, 학교에서의 학습 등을 통한 외국인 및 외국에 뿌리를 둔 주민의 인권 존중 계몽 및 외국인 시민의 모국 문화, 관습 등의 학습 기회 제공
- 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공생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 촉진

다문화 공생 시책 추진 체계의 정비

외국인 시민이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가운데, 다문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본 시의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 및 기업,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1) 청내 추진 체계의 정비

- 히로시마시 다문화 공생 관계과장 회의에서의 다문화 공생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 제공 및 공유
- 연수 등을 통한 시 직원의 다문화 공생 의식 계몽 및 외국인 시민 지원에 관한 지식 공유

(2)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협동

- 사회복지협의회 및 히로시마 LMO 등 지역, 시민 단체에 대한 다문화 공생 관련 연수 및 지식 제공
- 공익재단법인 히로시마 평화문화센터 국제시민교류과를 지역 내 다문화 공생 추진 주체로 한 사회복지협의회, 히로시마 LMO 등 지역, 시민 단체와의 연계, 협력
- 외국인 시민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 및 NPO 등의 정보 파악, 공유 및 활동하기 쉬운 환경 조성

(3) 다문화 공생 추진 거점 정비

- 다문화 공생 추진 기능 강화로 이어지는 거점의 시내 중심부 설치 검토